

방산수출 주요지표 분석과 중동권역 방산시장 개척 전략

장원준* · 송재필 · 김미정 · 방은지**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부

《국문초록》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UAE를 국빈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통해 국방·방산 분야에서 궁극적으로 양국간 무기 공동개발·생산·수출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3대 방산수출 시장의 하나인 중동권역의 최근 방산시장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방산수출 주요지표를 분석한 다음, 중동권역에 맞는 전략적 방산시장 개척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10년간 권역별 무기수입 현황을 보면, 중동권역의 무기수입 비중은 12%p(17%→29%) 급증하였다. 향후 5년(2018~22)간 중동권역의 무기획득 예산은 1,300억 달러를 상회할 전망이다. UAE는 한국과의 정상회담 이후 유도무기, 함정 건조, 감시장비체계, RWCS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라크는 전후 재건활동에 주력하며 무기체계 및 관련시설, 장비 구매에 집중할 전망이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는 강력하게 추진 중인 Saudization 정책에 따라 현지화 요구 충족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중동권역에 대한 방산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전 주기간 맞춤형 방위산업 Total Solution 제공과 중동권역 방산협력관 신설, 중동 주요국들과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국내 국방 R&D 사업에 투자 유치, 양국간 공동협력방식 다양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방산수출, 중동 권역, UAE, 방산협력관, 공동개발·생산·수출

* 제1저자, wjjang47@kiet.re.kr

** 교신저자

I. 서론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UAE를 국빈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였다. 특히, 국방·방산 분야에서도 단순한 기술이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같이 개발하고 생산해 제3국에 공동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후 4월에는 국방장관 일행이 UAE를 방문하여 양국간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과 인적교류 확대, 교육훈련을 포함한 ‘포괄적 방산기술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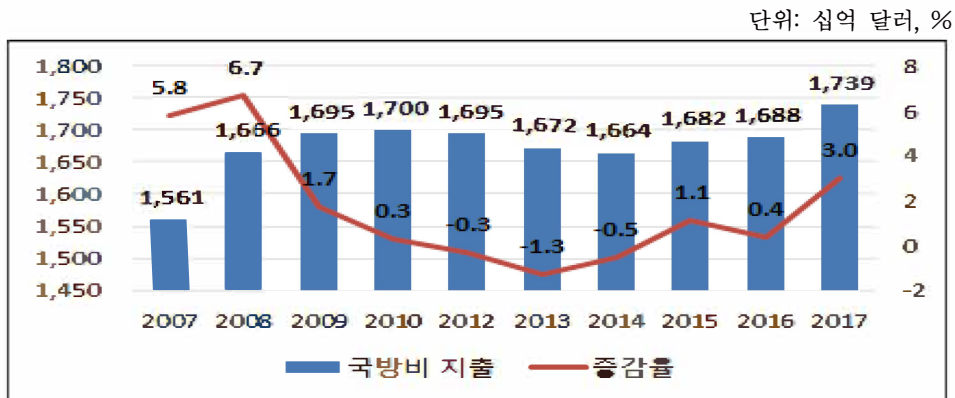
이에 따라, 한국은 향후 ‘선택과 집중’의 방산수출 전략 추진을 통해 UAE를 중동권역 방산수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방위산업을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할 시점이다.¹⁾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3대 방산수출시장의 하나인 중동권역의 최근 방산시장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방산수출 주요지표를 분석한 다음, 중동권역에 맞는 전략적 방산시장 개척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중동권역 방산시장 동향과 전망

2017년 세계 국방비는 1조 7,390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 냉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다.²⁾ 미국 트럼프 정부의 군 현대화 사업 추진과 ‘방위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유럽·중동·아시아 주요국들의 국방예산 증가 추세, 중동을 포함한 권역별 분쟁과 테러 증가 등이 주요요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국방비 증가 추세는 글로벌 무기구매 수요를 촉진시켜 방산시장 진출의 호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1) 새 정부 국정과제(88번)에 ‘방위산업의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 국방개혁 2.0에도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해 높은 부가가치와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출중심 방위산업으로 전환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7 ‘국방개혁 2.0 관련 보도자료, 2018.7.27.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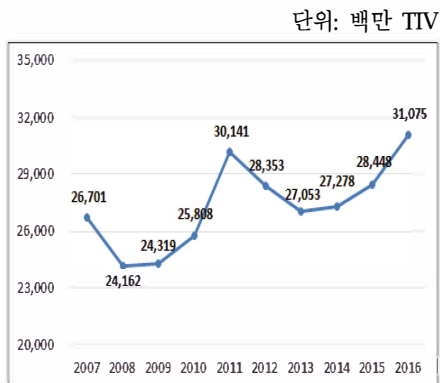
2) SIPRI (2018).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그림 2-1> 글로벌 국방예산 추이(2007~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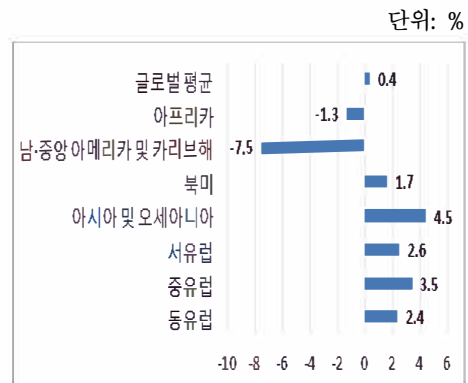
자료: SIPRI,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2018을 기초로 KIET 재작성

2016년 기준 글로벌 무기거래량은 310억 TIV³⁾로 집계되어 2013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무기체계 부품 및 수리부속, 후속군수지원 서비스까지 포함하면 약 1,000~1,2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무기거래 증가의 주요 원인은 중동, 동·북유럽, 동북·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 등에 따른 수요 확대로 풀이된다.⁴⁾



<그림 2-2> 세계 무기수출 규모(2007~16)

자료: SIPRI,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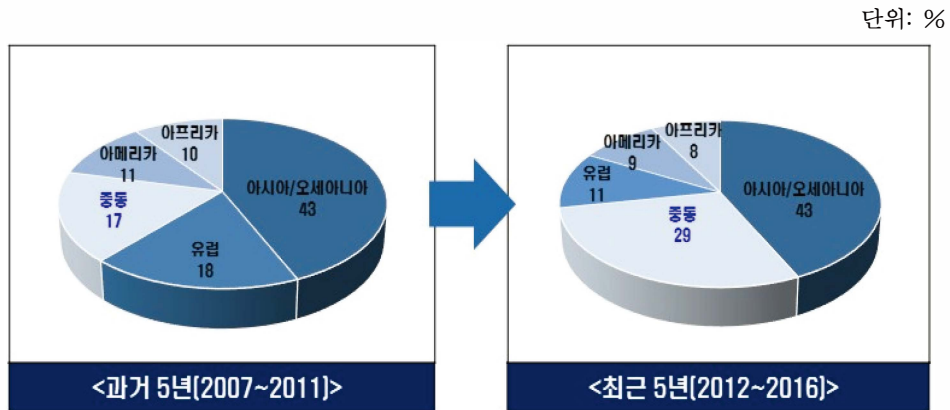
<그림 2-3> 권역별 국방예산 변화(2015~16)

자료: SIPRI, SIPRI Yearbook 2017

3) Trend Indicator Value의 약자로 무기거래량을 의미(SIPRI, 2017).

4) 장원준 외 (2018) 글로벌 방산수출 유망시장 전망과 수출활성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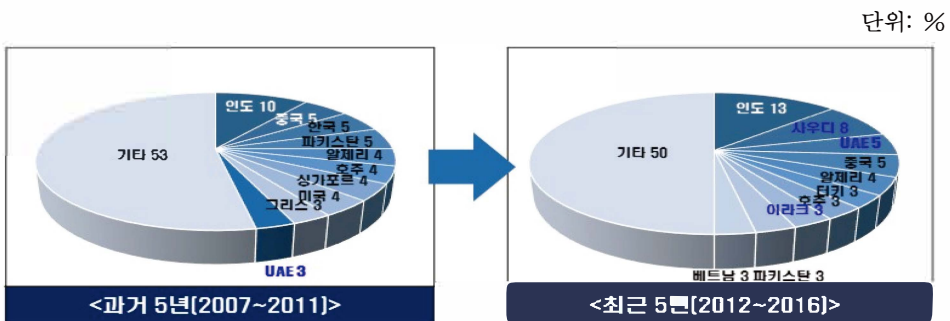
최근 5년(2012~16)간 권역별 무기수입 현황을 보면, 아시아·태평양 권역이 전체의 43%로 가장 높고, 중동권역 비중도 29%를 차지하고 있다. 과거 5년(2007~2011)과 비교시, 아시아·태평양 권역 비중은 동일한 수준인 반면, 중동 권역 비중은 12%p(17%→29%) 급증하였다.



<그림 2-4> 권역별 무기수입 비중변화(07~16)

자료: SIPRI,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17을 기초로 KIET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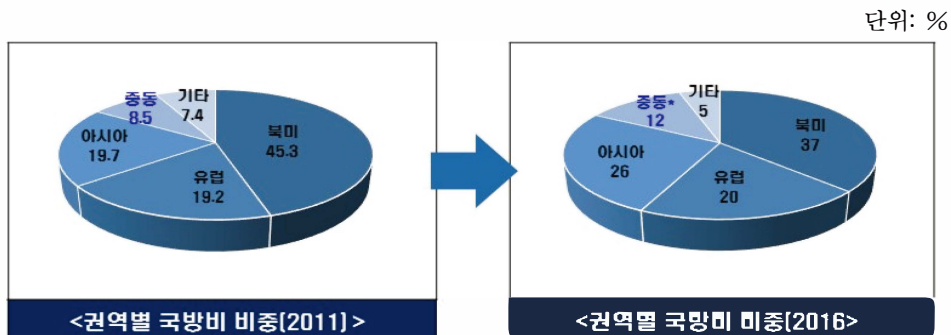
국가별로는 인도가 전체의 13%로 가장 높은 가운데, 사우디, UAE가 세계 2위, 3위로 급부상하였다. 인도가 세계 최대 무기 수입 규모를 유지(10%→13%)하는 가운데, 최근 5년(2010~2014)간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2위로 부상하였다(2.9%→8.2%). 아울러, UAE(5%)가 3위, 이라크(3%)도 8위를 차지하면서 중동 3개국이 무기수입 세계 10위 국가에 진입하였다.



<그림 2-5> 주요국 무기수입 비중변화(07~16)

자료: SIPRI,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17을 기초로 KIET 작성

중동권역의 2016년 국방비 비중은 전 세계의 12%로 5년 전 대비 3.5%p 증가하였다. 주요 요인으로는 중동 권역에 계속되는 분쟁, 내전 등에 따른 높은 무기구매 소요로 파악된다. SIPRI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비는 2017년 694억 달러로 최근 10년(2008~17)간 34% 증가하였다. 특히 최근까지 이라크, 시리아 등을 중심으로 이슬람극단주의(ISIS)와의 분쟁과 사우디, UAE 등 주요국들의 첨단무기체계 수입 확대 등이 주요요인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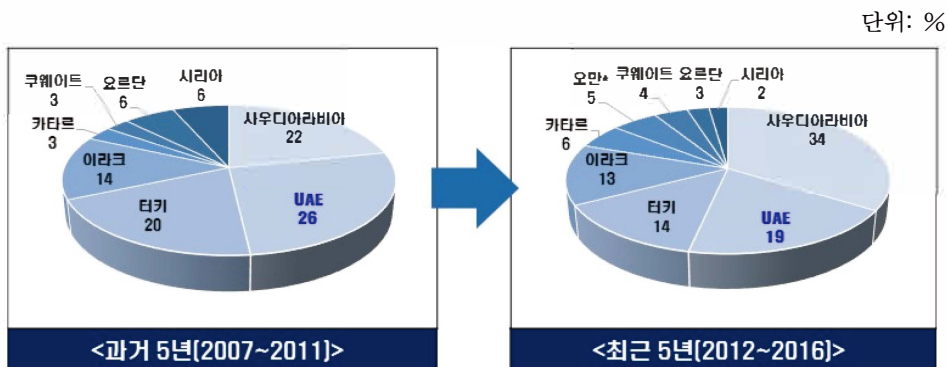


<그림 2-6> 권역별 국방비 비중변화(2011 vs 2016)

자료: SIPRI,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2017을 기초로 KIET 작성

주: * 2016년 중동은 추정치

최근 5년(2012~16)간 중동권역 무기수입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과거 5년(2007~11)대비 무려 112% 급증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가 34%로 가장 많고, UAE 19%, 터키 14%, 이라크 13% 순을 차지했다. 무기 수입액 전체의 80%가 사우디아라비아, UAE, 터키, 이라크 4개국에 집중되고 있음도 특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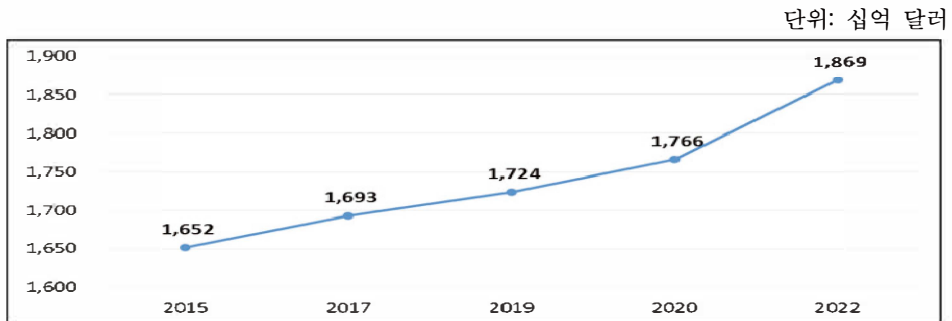


<그림 2-7> 중동권역 무기수입 변화 추이(2007~16)

자료: SIPRI,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17을 기초로 KIET 작성

주: *무기수입 50위 국가 중 중동권역 국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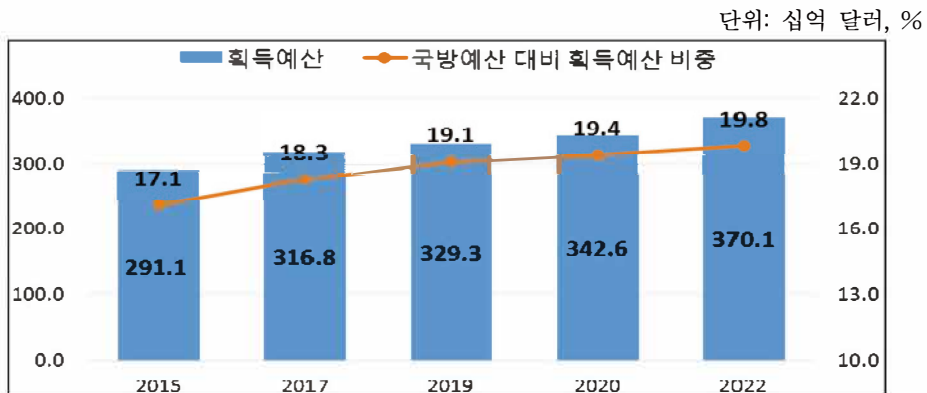
세계 국방예산은 향후 5년(2018~22)간 연평균 3% 내외로 성장하여 2022년에는 1조 8,7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 미국 국방전략서(NDS)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군 현대화 정책 추진, 유럽의 테러·분쟁 위협 증대, 중국과 미국, 인도 등과의 갈등 심화 등에 따라 군비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8> 세계 국방예산 전망(2015~22)

자료: IHS Jane's, Jane's Defense Budgets, 2016.11.; Teal Group, International Defense Briefing, 2016.

아울러, 세계 무기획득 예산은 2022년 기준 약 3,700억 달러로 전체 국방예산의 19.8%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⁵⁾ 국방예산 대비 무기획득 예산 비중은 2017년 17.1%에서 2022년 19.8%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방산시장 확대에 따른 주요국 정부 및 기업들의 수출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그림 2-9> 세계 무기획득예산 전망(2015~22)

자료: IHS Jane's, Jane's Defense Budgets, 2016.11.

5) IHS Jane's, Jane's Defense Budgets, 2016.11.

향후 5년(2018~22)간 중동권역의 무기획득 예산은 1,300억 달러를 상회할 전망이다.⁶⁾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라크, 터키 등 주요 4개국의 무기획득 예산은 향후 5년간 1,0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사우디아라비아가 587억 달러로 연평균 약 117억 달러를 무기획득비로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⁷⁾

UAE는 국방예산의 약 14%을 무기 획득비에 할당하며 향후 5년간 176억 달러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UAE는 한국과의 정상회담 이후 유도무기, 함정 건조, 감시장비체계, RWCS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⁸⁾ 아울러, 한국의 T-50 훈련기를 구매한 이라크도 전후 재건활동에 주력하며 무기체계 및 관련시설, 장비 구매에 집중할 전망이다.

<표 2-1> 중동권역 주요국가들의 무기획득 예산 전망(2018~22)

단위: 억 달러

국가	2016년		무기획득예산 전망(2018~2022)
	국방예산	무기획득예산	
사우디아라비아	613	100~110*	587
UAE	200+	26	176+
이라크	66	20~25*	121
터키	150	28	112
기타 국가	380	55~60	300~310
합계	1,409+	231~249	1,300+

자료: 안영수 외, 2018 10대 방산수출 유망국가, 2018; SIPRI, Military Expenditure DB, 2018 등을 기초로 재작성

주: *은 추정치

III. 국내 방산수출 주요지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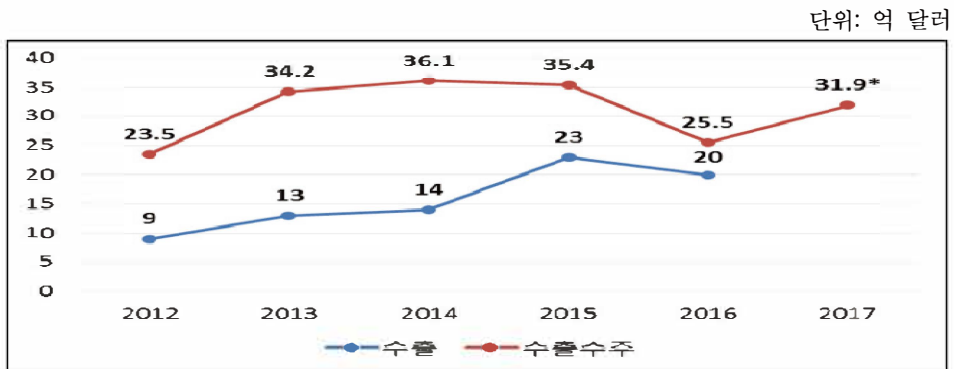
최근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통관기준으로 2조 2,42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⁹⁾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2.2% 증가한 수치이다. 같은 기간 생산액 대비 수출 비중은 4.3%p 증가(9.3%→13.6%)하였으나, 선진국 수준(25%~75%)과 비교시 저조한 수준이다.

6) 안영수 외, 2018 10대 방산수출 유망국가, 2018;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2018. 등을 기초로 산업연구원 작성.

7) 사우디아라비아는 왕령에 의해 국가재량지출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무기구매예산에 대한 변동성이 높은 편이다.

8) 산업연구원-한국방위산업학회 UAE 방산시장 분석 세미나, 전 UAE 무관 발표자료 참조(2018.5.10.)

9) 산업연구원, 2017 KIET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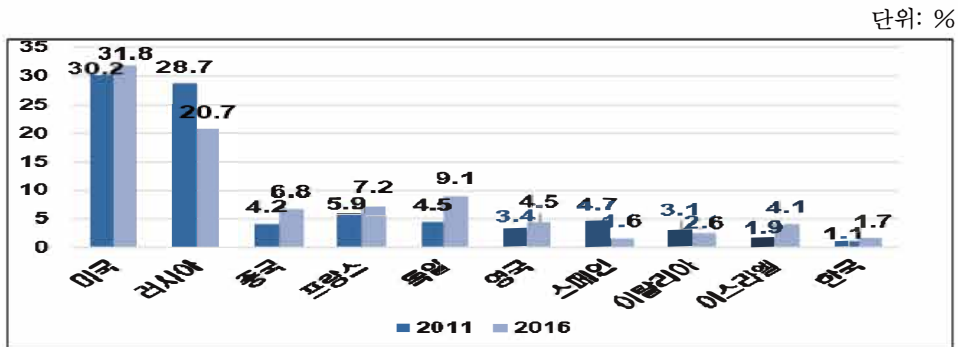
<그림 3-1> 국내 방위산업 수출 추이(2012~17)

자료: 장원준 외, 2017 KIET 방위산업 통계조사, 각년호;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통계연보, 2017.을
기초로 재작성

주: * 추정치

** 방산 수출은 통관기준으로, 2013년 이전은 연 방산매출 5억 원 이상, 2014년 이후는 3억 원 이상
방산기업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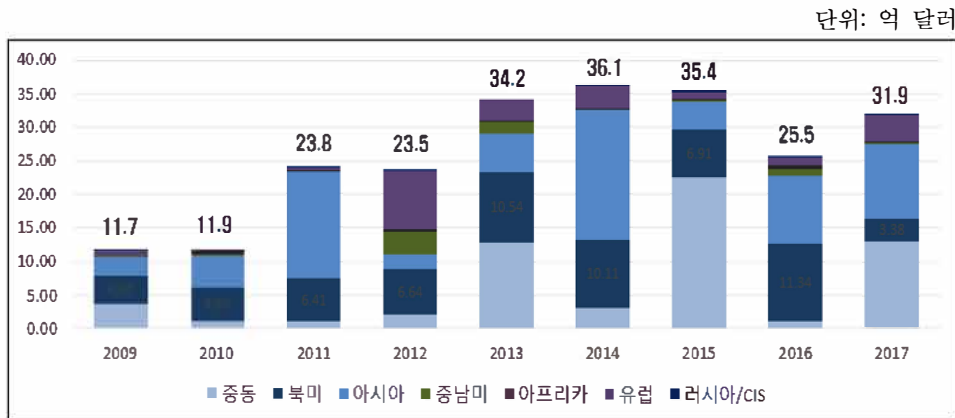
한국의 글로벌 방산시장 점유율은 2016년 1.7%로 5년 전 대비 0.6%p 증가하였다. 글로벌 Big 6
(미국·러시아·중국·프랑스·독일·영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그림 3-2> 주요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변화(2011 vs. 2016)

자료: SIPRI, SIPRI Arms Transfer Database,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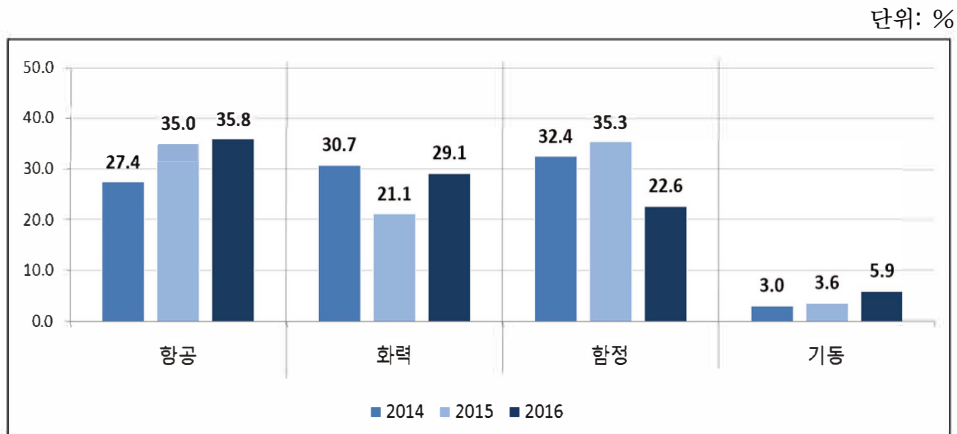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방산수출 수주는 31.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최근 8년(2009~16)간 중동 권역이 23.7%를 차지, 아시아 32.1%, 북미 30.1%와 함께 한국의 3대 방산수출 권역으로 부상하였다. 이어서, 유럽(9.3%), 중남미(3.3%), 아프리카(1.3%), 러시아/CIS(0.2%) 순이다.



<그림 3-3> 권역별 방산수출 수주 현황(2009~17)

자료: 방위사업청, 2017 방위사업 통계연보, 2017;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18년 방산 수출워크숍, 2018.2를 기초로 제작성

무기체계별로는 2016년 항공, 함정, 화력 3개 분야가 전체 수출의 87.5%를 차지하였다. 항공이 35.8%로 가장 높았고, 화력 29.1%, 함정 22.6% 순이다. 전년 대비 함정 수출비중은 12.7%p 감소한 반면, 화력은 K-9 자주포 수출 등에 힘입어 8.0%p 증가하였다. 반면, 기동 분야는 5.9%로 저조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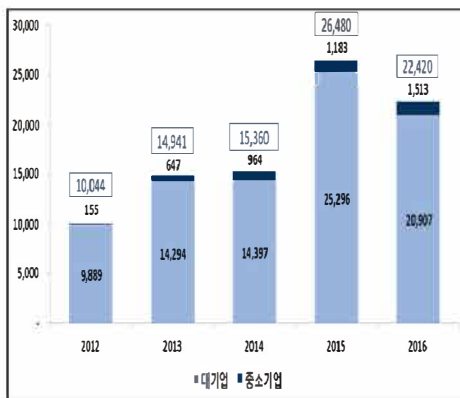
<그림 3-4> 무기체계별 방산 수출 현황(2014~16)

자료: 장원준 외, KIET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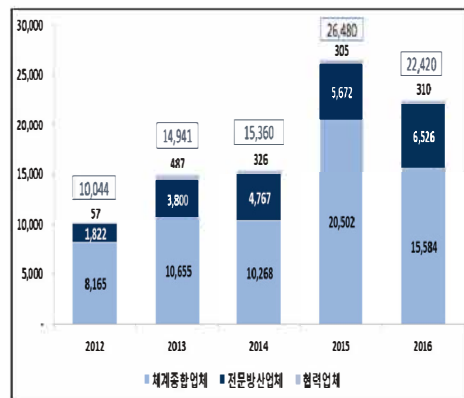
대·중소기업별로는 중소기업 방산수출이 2016년 기준 1,513억 원을 기록하였다. 반면, 대기업은 같은 기준 2.1조원을 기록하며 전체의 93.3%를 차지, 대기업 위주의 수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중소기업 방산 수출은 최근 5년간 연평균 76.8%의 높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액의 6.7%로 저조한 실정이다. 중소기업 방산수출 부진의 주요 요인은 완제품 위주의 수출, 해외 시장정보 확보의 어려움, 중소기업 수출시스템 미구축, 마케팅 역량의 한계 등으로 분석된다. 향후 완제품 수출과 병행하여 GtoG를 통한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 확대, 중소기업 부품 홍보 지원, 전시회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수출시장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위: %



<그림 3-5> 대중소기업별 수출
현황(2012~16)



<그림 3-6> 업체유형별 수출
현황(2012~16)

자료: 장원준 외, KIET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 2017

중동권역을 대상으로 한 방산수출은 수주기준으로 최근 3년(2014~16)간 약 19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대전차무기체계, T-50 훈련기, 전차 기술수출 등이 주요 수출품목이다.

UAE는 그동안 서방 선진국으로부터 주로 무기를 도입 및 운용하여 왔으나, 무기체계 편중이 심화되고 높은 운용유지비용 등의 이유로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무기 단순 구매방식에서 자국 기업과의 협력생산, 조인트벤처(JV) 설립, 기술이전, MRO 센터 신설 등을 통해 자국 방위산업 역량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1> 중동지역 방산수출수주실적 현황(2014~2016)

단위: 억 달러

순위	국가명	방산수출 수주 실적	수출제품
1	UAE	10+	대전차무기류
2	이라크	7.6	T-50 훈련기 등
3	사우디아라비아	0.8	탄약 등
4	터키	0.5	전차 기술수출 등
합계		18.9	-

자료: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통계연보 각년호, 언론보도자료, 각년호 등을 기초로 KIET 제작성

IV. 중동권역 전략적 방산시장 개척전략

향후 중동권역으로의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공동개발·생산 및 수출품목·방식 다변화를 통한 적극적인 수출확대 전략이 필요하다. UAE는 대공방어체계, 유도무기, 함정, RCWS 등이 유망할 전망이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강력하게 추진 중인 Saudization 정책에 따라 현지화 요구 충족을 통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전망이다.

<표 4-1> 중동권역 방산수출유망국가 현황 및 전망 종합

단위: 억 달러

권역명	국가명	수출(수주) 실적(2007~16)		무기획득예산 (2018~22)	수출유망품목	방산수출거점·유망국가		주요사업 추진현황
		품목	금액			현재	향후	
중동	터키	훈련기, 차기 전차기술, 호위함, 이지스함등	16.6	112	KT-1, K-9 자주포등	◎	☆	한국과 방산협력 희망
	UAE	대전차 무기류, 훈련기, 유도무기, 함정, 감시장비 등	10.7	176	대공포, M-SAM, 자주포, RCWS 등	-	★	한-UAE 정상회담(18.3)
	사우디	전차 기술수출, 유도무기, 전투기, 헬기 등	0.5	587	유도무기, 기동 장비 등	-	★	사우디 현지화 요구에 따라 국내 기업의 JV설립 검토 중
	이라크	훈련기, 비행장, 탄약, 국방통신망 등	12.7	121	KUH 등	◎	☆	

권역명	국가명	수출(수주) 실적(2007~16)		무기획득예산 (2018~22)	수출유망품목	방산수출거점·유망국가		주요사업 추진현황
		품목	금액			현재	향후	
	기타	-	-	300~310	다수	-	-	
계			40.5+	1,300+				

자료: 방산업체 인터뷰 종합, 2017; 2018. 1; 안영수 외, 2018 방산수출 10대 유망국가, 2018을 기초로 제작성

주: * ◎ 기존 거점국가, ★ 신규 유망국가, ☆ 기존 거점국가

이에 따라, UAE를 포함한 중동권역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맞춤형 방위산업 Total Solution 제공, 중동권역 방산협력관 신설, 양국간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국내 국방 R&D사업에 UAE 투자 유치, 국방기술 및 무기체계 공동협력방식 다양화 등에 집중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4.1 맞춤형 방위산업 Total Solution 제공

먼저,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은 「세계 10위」 수준으로 평가된다. 세계 최고수준의 제조업 역량, 첨단 무기 개발능력 보유, 수요국의 높은 운용경험, 높은 수출 실적 등으로 중동, 동남아, 중남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국을 자국의 ‘방위산업 Role Model’로서의 인식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표 4-2> 주요국의 방위산업 역량

단위: 위, 억 달러, 백만 TIV, %, 개

순위	국가	국방비	생산*	수출**	국방과학기술수준	세계100대 방산기업수
1	미국	5,960	2,097	46,375	100	39
2	중국	2,141	N/A	7,919	84	N/A
3	러시아	664	301	35,411(152)	90	11
4~9	프랑스 외	-	-	-	-	-
10	한국	364	77	1,224 (17.1)	81	7

자료: 장원준 외, KIET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 각년호; SIPRI, SIPRI YEAR BOOK, 각년호;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18th Annual Reports on arms exports, 2016; Russia&India report, 2015;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서, 2015등을 기초로 KIET 제작성

* 글로벌 100대 방산업체에 포함된 기업의 방산생산액

** SIPRI 무기거래량(TIV) 기준

미국의 경우, 우방국들에 대한 안보지원을 위해 군사고문단(JUSMAG) 설립부터 연합훈련, 무기 체계 상호운용성 강화, 수출 확대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1950년대 미국의 군사고문단(JUSMAG) 지원으로부터 미국 무기체계를 도입하여 왔다. 2016년 기준 한국의 미국 무기수입은 197억 달러로 전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2012~16)간 한국의 미국 무기수입 비중은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다.¹⁰⁾

이에 따라, 중동권역 방산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전 주기간 「맞춤형 방위산업 Total Solution 모델」을 제공,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단순한 무기수출 개념에서 벗어나 중동 주요국들이 요구하는 맞춤형 방위산업 Total Solution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UAE 무기수출 성공이 한국군 부대 지원과 대테러, VIP 호위등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구축한 것이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¹¹⁾ 향후 중동 주요국들이 요구하는 작전/전략 개념 발전으로부터 소요기획, 맞춤형 무기체계 포트폴리오 구축, UAE 국방연구소 설립 지원, 수출 패키지 제공, 운영유지/PBL 지원에 이르는 ‘방위산업 Total Solution’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와 규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4.2 중동권역 방산협력관 신설

2018년 3월 한국과 UAE간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외교·국방 2+2 차관급 협의체」신설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UAE와 외교, 산업 분야와 함께 국방과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양국간 실질적인 국방·방산협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방산협력관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¹²⁾ 중동은 향후 5년(2018~22)간 무기구매 예산이 1,300억 달러를 상회할 정도의 주력 방산수출시장이다. 천문학적인 오일달러, 첨단무기체계 선호, 자국 방위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한다는 점에서 가장 매력적인 방산수출 시장 중 하나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향후 양국간 국방기술 및 무기체계 공동소요 발굴, 절충교역/산업 협력(Offset/Industrial Cooperation) 활용 등에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UAE를 중심으로 중동권역 주요국가로 방위산업 협력을 확대함과 아울러, 무기구매력이 높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GCC 국가 및 북아프리카 국가(MENA)까지 방산수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10) Lee, Choon Joo, (2017)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ROK-US Security Cooperation', DAPA-KIET-CSIS 국제세미나 발표자료.

11) 산업연구원-한국방위산업학회 UAE 방산시장 분석 세미나, 전 UAE 무관 발표자료 참조

12) 영국은 방산수출을 전담하는 DIT-DSO에서 주요 권역(국가)에 방산협력관 파견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인도에서도 2014년 미국과 DTTI를 신설하며, 양국간 방산협력부서 및 전문인력을 증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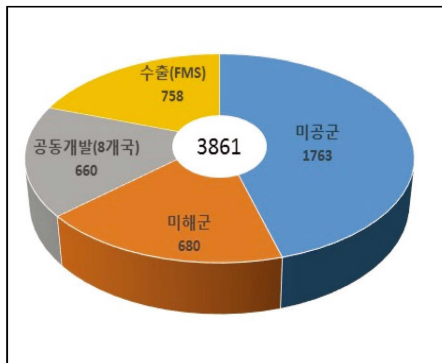
4.3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국내 국방 R&D 사업에 투자 유치

아울러, 소요기획단계부터 중동권역 주요국가들과 공동개발사업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중·장기 소요 중 중동국가들이 도입 또는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을 발굴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F-35 전투기 개발시 공동개발/수출(FMS) 방식을 통해 소요량을 37%(1,418대)이상 확대하였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UAE의 경우, 무기수요가 높은 유도무기, 무인수상정, 구축함 등을 중심으로 공동개발 또는 기술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UAE가 선호하는 노후 무기체계에 대한 성능개량 소요를 양국간 공동 성능개량(PIP)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남아공 G-6 자주포를 대체할 자주포 PIP 사업, 러시아 BMP-3 장갑차 최신화를 위한 장갑차 PIP 사업 추진도 유력한 대안 중 하나로 분석된다.¹³⁾

또한, 국내 국방 R&D 및 무기개발 사업에 중동권역 주요국가들의 투자를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F-35 전투기 초도양산(LRIP)간에도 구매국 수요를 포함시켜 진화적·맞춤식인 개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관급 협의체 또는 방산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중동권역 주요국가들이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을 식별하고, 투자 유치, 기술지원, 교육훈련, 시험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¹⁴⁾

단위: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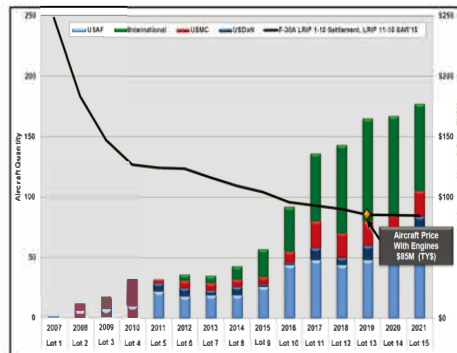


<그림 4-1> F-35 전투기 글로벌 수요현황(2017)

자료: 미 록히드마틴사 제공자료, 2017.12

주: * 2018년 현재 F-35 전투기의 12차 LRIP 진행중이며, 녹색이 해외무기수요임.

단위: 대,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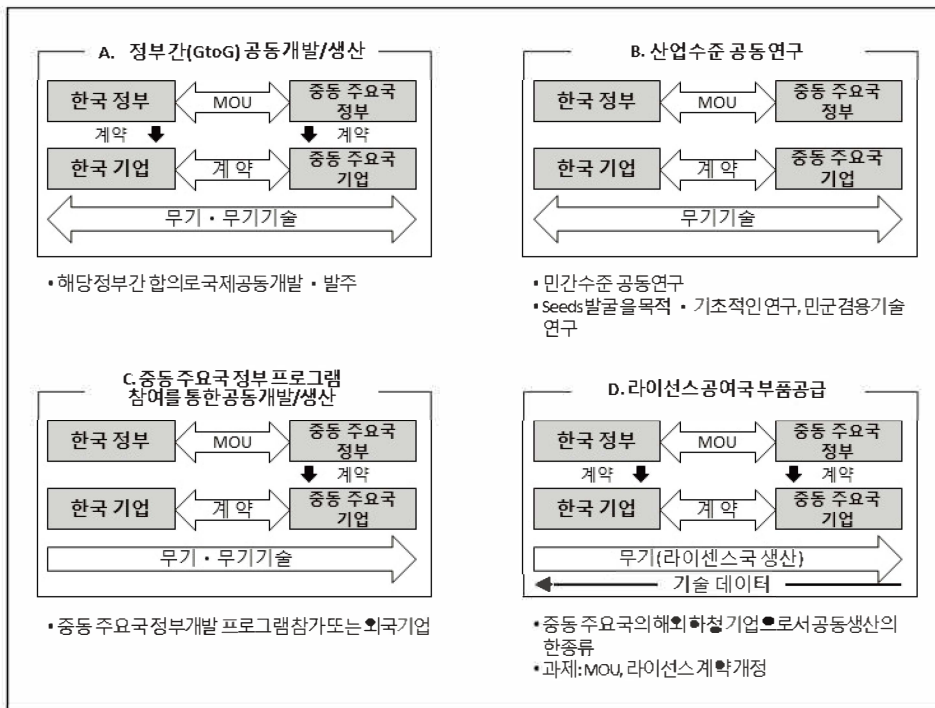
<그림 4-2> F-35 전투기 개발 현황(2007~21)

13) 산업연구원-한국방위산업학회 UAE 방산시장 분석 세미나, 전 UAE 무관 발표자료 참조(2018.5.10.)

14) 중동권역 주요국가들의 국내 국방사업 투자유치간 전략비핵 분야나 첨단기술 분야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기술보호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4.4 공동협력방식 다양화

마지막으로, 한국과 중동 주요국간 국방기술 및 무기체계에 대한 공동협력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간 공동개발/생산(GtoG) 외에도 공동 연구, 중동국가들과의 국방사업 참여 및 기술이전 확대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제정한 이후, 기술력 제고와 수출시장 선점, 상호운용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우방국과의 공동개발 및 생산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그림 4-3> 한-중동 주요국 국제공동 연구개발생산 추진방안(예시)

자료: 장원준 외, 한일 방위산업 비교분석과 시사점, 2018을 기초로 수정보완 작성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 한국-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강조되고 있는 중동권역 주요국가과의 국방·방산분야 공동개발·생산·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 8년(2009~16)간 중동권역은

한국 전체 방산수출수주의 24%를 차지, 아시아, 북미에 이어 3대 방산시장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향후, 미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전 세계적인 국방예산 증가 추세와 중동 권역 주요국가들의 높은 무기수요는 향후 방산수출신흥강국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수출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존 개발무기체계의 수출뿐만 아니라 중동 주요국들이 요구하는 전 주기간 방위산업 Total Solution을 제공하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위산업 협력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국방·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방산협력관 신설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공동개발사업 확대와 적극적인 투자 유치, 국방 R&D 협력방식 다양화 등을 통해 국내 방산수출 확대의 교두보로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방위산업의 미래먹거리 산업으로의 육성과 수출산업화,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국방기술품질원 (2015).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서.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방위사업청 (2017). 2017 방위사업 통계연보.
- 산업연구원-한국방위산업학회 UAE 방산시장 분석 세미나 (2018.05.10). 전 UAE 무관 발표자료.
- 심진보 (2017). ICT 관점에서 바라본 제4차 산업혁명.
- 안영수 · 김미정 (2018). 2018 10대 방산수출 유망국가, 산업연구원.
- 장원준 · 김미정 · 송재필 (2017). 2017 KIET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 산업연구원.
- 장원준 · 오드 플레랑 · 시몬 베제만 · 김미정 · 송재필 (2018) 한일 방위산업 비교분석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 장원준 · 송재필 (2018). 글로벌 방산수출 유망시장 전망과 수출활성화 전략, 산업연구원 월간산업경제, 2018년 3월호.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2018). 2018년 방산수출워크숍 발표자료.
-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2016). 18th Annual Reports on arms exports.
- IHS Jane's (2016). Jane's Defense Budgets.
- Lee, Choon Joo, (2017)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ROK-US Security Cooperation, DAPA-KIET-CSIS 국제세미나 발표자료.
- Report to Congress Restructuring the Department of Defense Acquisition, Technology and Logistics Organization and Chief Management Officer Organization, 17.8; Defense One, 18. 4.26
- Russia&India report, 2015.
- SIPRI (2017).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 SIPRI (2017). SIPRI Yearbook 2017.
- SIPRI (2017).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 SIPRI (2018).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 Teal Group (2016). International Defense Briefing.
- Teal Group (2016). World Military Unmanned Aerial Systems.
- U.S. Department of State (2018). U.S. Policy on the Export of Unmanned Aerial Systems.

원 고 접 수 일 2018년 7월 31일

원 고 수 정 일 2018년 8월 26일

게 재 확 정 일 2018년 9월 7일

Analysis of Key factors in Arms Export and Arms Export Strategy of Middle East Countries

Jang Woun-Joon · Song Jae-Pil · Kim Mi-Jung · Bang Eun-Ji

KIET

President Moon has visited to UAE as a National Visit in March, 2018 and express to support co-develop, co-produce and co-export to the third countries of weapon system. Therefore, the paper analyzes the recent arms market in the Middle East, as one of the three major arms export market to Korea, and present an arms export strategy to customize the Middle East countries.

Concerning a recent 10 year arms export by region, the ratio of Middle East countries arms export was highly increased by 12%p(17%→29%). And arms acquisition budget in 5 years(2018~22) will be over 130 billion dollars. UAE has a highly interested in missiles, warship building, surveillance system, RWCS etc after Summit meeting. Iraq has focus on his post war rebuilding to include relevant weapon system and facilities. Also, Saudi Arabia is necessary to fulfill his Saudization policy to enter his arms market.

For expanding of Middle East arms market, it is necessary to provide customized defense industry total solution for the whole weapon system lifecycles, dispatch defense cooperation director, find out co-development program between Korea and Middle East countries, and diversify cooperation system in the near future.

Keywords : Arms Export, Middle East Countries, UAE, Director of Defense Cooperation, Co-Development, Co-Production and Co-Export